P43

신증을 동반한 HSP 신염에서 Cyclosporine A의 치료 효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병리학교실*
권민중, 김병길, 정현주*, 최인준*

목 적 : Henoch-Schönlein purpura(HSP)에서 신장을 침범하는 경우는 20-100%로 발병 당시의 혈뇨의 정도 및 단백뇨의 동반 여부에 따라 예후가 다양하다. 신증을 동반하는 경우의 HSP 신염은 10년 신생존율이 60-70%로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테로이드와 다른 면역억제제가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으나 아직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신증을 동반한 HSP 신염에서의 cyclosporine A 치료 효과를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9년 10월부터 1995년 3월까지 신증을 동반한 HSP 신염으로 진단받은 18명을 대상으로 prednisolone과 cyclosporine A를 6-8개월간 투여하여 치료 효과를 관찰하였다. Prednisolone은 체중 Kg당 1-2 mg을 격일로 투여하였으며 cyclosporine A는 체중 kg당 5mg을 매일 투여하면서 혈중 농도에 따라 증감토록 하였다. 치료 전후에 신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조직 변화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cyclosporine A의 신독성 여부도 관찰하였다.
결 과 : 초기 신생검시 clinical state는 1례가 D였으며 나머지 12례는 모두 C였다. 투여 시작후 3.4±1.6개월후 단백뇨가 전 예에서 소실되었으며 17.4±8.6개월간의 추적 관찰후 clinical state는 7례가 A였으며 나머지 11례는 B였다. 조직병리학상 ISKDC 분류에 의해 6례에서 호전이 있었으며 10례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2례에서는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변화가 없었던 10례에서도 면역형광 현미경상 면역 침착의 강도와 범위가 모두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조직 소견상 악화된 2례중 1례는 임상적으로는 호전된 예였고 다른 1례는 말기신부전으로 이행되어 신장이식을 시행받았다. Cyclosporine에 의한 신독성은 조직 소견상 전 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결 론 : 신증을 동반한 HSP 신염의 치료에서의 cyclosporine A 치료 효과는 임상적 호전뿐만 아니라 조직병리학적으로도 호전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조직학적 변화가 일부에서만 일어나고 또한 재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오랜 기간의 추적관찰 및 보다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44

추적 신생검을 시행한 Lupus 신염 5례의 조직병리학적 변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병리학교실*
권민중, 김병길, 최인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임현이

목 적 :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의 도입으로 lupus 신염의 예후는 급격한 향상을 가져왔으나 아직도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로는 발병시 성별, 연령, 인종, 단백뇨 정도 및 조직병리학적 소견 등이 알려져 있다. 조직병리학적 소견은 WHO 분류에 의해 나누어지는데 이중 미만성 증식성형이 예후가 제일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견에 따라 활성도와 만성도가 측정되는데 치료에 따른 조직병리학적 소견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가 미비하다. 이에 저자들은 lupus 신염에서 추적 신생검을 통해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살펴보고 치료의 유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Lupus 신염 5명에서 추적 신생검을 시행하였다. 치료 시작 전에 신생검을 시행하여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살펴보았고 induction therapy로 methylprednisolone pulse therapy를 시행하고 유지요법으로는 prednisolone(1-2 mg/kg/q.o.d)과 azathioprine(2 mg/kg/day)을 투여하였으며 혈청학적 검사상 질병의 활성화가 나타나면 methylprednisolone pulse therapy를 시행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자 5례중 3례는 미만성 증식성형이었고 2례는 국소성 증식성형이었다. 치료전 말초 혈액 소견상 백혈구수 4,920±1,388(/mm^2), 헤모글로빈 9.34±2.38(g/dl), 혈소판수 213,200±124,678(/mm^2)이었으며 24시간 요단백량은 4,652±5,771(mg/day)였다. 혈청학적 검사상 5례 모두 ANA가 1:160 이상이었고 anti-DNA는 4례가 1:160 이상이었으며 혈청 보체는 4례에서 저하되어 있었다. 조직병리학상 활성도는 7.8±1.3 (max. 24), 만성도는 1.0±0.7 (max. 12)였다. 추적 신생검은 63±39.1 개월 후에 시행하였는데 이 당시 백혈구수는 6,744±1,071(/mm^2), 헤모글로빈 11.74±1.44(g/dl), 혈소판수 267,000±54,648(/mm^2)로 증가하였으며 1례에서만 신증이 지속되었고 나머지 4례는 단백뇨가 소실되었다. 혈청학적 검사상 2례에서 ANA가 음성이었고 anti-DNA는 5례 모두 음성이었으며 혈청 보체는 모두 정상화되었다. 조직병리학상 4례에서 WHO 분류상 호전을 보였으며 1례는 변화가 없었으나 활성도는 1.0±0.7로 모든 예에서 호전을 보였다.
결 론 : prednisolone과 azathioprine을 이용한 유지 요법은 소아 lupus 신염에서 효과적인 치료임을 알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에 따라 조직병리학상으로도 호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